

미 수은 동향 보고

- 美 하원, 미 수은 10년 재인가 법안 통과

(2019. 11. 21.)

워싱턴사무소

1 재인가 법안 美 하원 통과

- (美 하원 통과) 美 하원, 미 수은 재인가 법안(EXIM reauthorization bill) 통과(2019. 11. 15.)
 - 미 수은 재인가 법안*은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** Maxine Waters 의장(민주당)이 발의한 법안
 - * United States Export Finance Agency Act of 2019
 - **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
 - 재인가 법안은 11월 15일 美 하원 전체 통과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
- (법안 주요내용) 미 수은 재인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, 여신한도 30% 확대 및 임시 이사회 구성 가능 등
 - (재인가 기간) 통상 4년인 재인가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 확보
 - (여신한도 확대) 미 수은의 여신한도(Statutory Limit on Lending)를 기존 1,350억 달러에서 1,750억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
 - 2020년에는 여신한도를 1,450억 달러로 조정하며, 이후 매년 50억 달러씩 증액하여 2026년부터는 1,750억 달러까지 확대

- **(임시 이사회 구성)** 이사회 정족수 (3명)* 부족시 임시 이사회 (Temporary Board) 구성을 통한 영업 연속성 확보
 - *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회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
 - 2015. 7월~2019. 5월까지 약 4년 간 지속된 이사회 정족수 부족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장기/대형 사업승인 지연
 - 상원의 이사회 멤버 지명자에 대한 인준 지연에 따른 이사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중단 사태 방지
 - 이사회 정족수 부족 상황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무역대표부 대표, 재무장관, 상무장관, 미 수은 이사로 임시 이사회 구성 가능
- **(중소기업 지원 강화)** 전체 승인액 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
 - 미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 비율을 전체 승인액의 25%에서 30%로 확대(단, 2028. 10. 1.부터 적용)
 - 현재 미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 비율은 전체 승인액의 25% 이상이며, 의무지원 비율이 상승 중*
 - * 1985년 10% → 2002년 20% → 2015년 25%
- **(기관명 변경)** 미 수은 명칭을 “Export-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”에서 “United States Export Finance Agency”로 변경

2

향후 전망

- (美 상원 반대 예상) 공화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現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 - 재인가 법안 하원 통과 직후 美 상원 공화당 Mitch McConnell 원내대표는 재인가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
 -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 수은의 금융지원을 “기업복지”(corporate welfare)로 간주, 민간부문이 지원해야 할 분야에 미 수은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고 비판
 - 특히 미 수은이 Air China 등 중국기업 앞 과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,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 정부가 2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 삽입 주장
- (초당적 지지법안 마련 필요) 現 재인가 법안은 민주당만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으로, 미 수은 재인가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도 동의할 수 있도록 법안 조정 등이 필요
 - 11월 15일 하원 통과시 (찬성 235, 반대 184)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13명에 불과. 10월 31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도 공화당의 지지는 미미 (찬성 30, 반대 27)
 - 백악관도 재인가 법안 美 하원 통과 직후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한 現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
 - 양당 모두 미 수은 유지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한 법안 조정 등을 통해 합의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